

대만의 섬유산업 - 살아남기 위한 소재·가공 등 많은 과제

중국을 비롯한 신흥 섬유공업국으로부터 추격을 받아 대만 섬유산업의 경쟁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인 수출총액은 1997년의 169억 달러를 정점으로 2000년에는 152억 달러, 2003년에는 118억 달러로 격감하고 있다.

2006년의 수출총액은 117억 달러로 2005년보다는 0.42% 줄어든데 불과하여, 마침내 밑바닥을 친 것처럼 보이는데 해외 시프트(shift)로 산업공동화 현상이 업계에 침투하여 더욱 수출이 줄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리고 어패럴 등의 하류(下流; down stream)의 해외 시프트로 섬유 수출총액에서 어패럴 수출의 비율이 줄고 있는 한편으로 텍스타일 등 소재의 수출 비율은 늘어나는 경향도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

그러나 섬유산업이 중요한 외화취득산업임에는 변화가 없다. 섬유산업만의 무역수지를 보면 1997년에 과거 최대의 출초(出超; 130억 달러)를 기록하여 대만 경제에 이바지하였다. 섬유 무역 출초금액은 2006년에 90억 달러로 줄었지만 여전히 대만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섬유산업을 빼놓으면 대만의 무역수지는 크게 적자로 되어 버릴 것이다.

대만 섬유산업의 과제는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이들 과제를 언급하기 전에 대만 섬유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세계적인 제조규모의 확대라는 요소를 먼저 들지 않으면 안된다.

1769년의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하여 유럽 미국으로 확산된 후로 일본

과 아시아의 네 마리의 드래곤(dragon; 龍)이라고 하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로 번져나갔다. 그리고 냉전이 끝난 현재는 중국, 아세안, 인도 등의 신흥공업국도 해외시장을 의식하여 제조활동을 하고 있다.

신흥공업국은 서로 앞을 다투며 전세계로부터 원료나 연료를 구입하여, 제조된 상품을 세계시장에 공급해 온 결과로서 세계의 원료나 연료시세가 크게 오름과 동시에 오버 서플라이(over supply)로 제품 시세가 심하게 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세계산업사에서 최대의 격동기임과 동시에 경제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어 지구 규모로 큰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30년 동안에 제조하고 있는 나라의 인구규모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의 6,000만명에서 단숨에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의 25억명으로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권을 합치면 전부가 43억명이라는 계산이 된다. 한편 생산된 제품을 받아들이는 주요 시장은 서유럽, 북미와 일본이다.

그 영향으로 지구 온난화, 환경 오염과 함께 원·연료(原·燃料)의 급등과 제품 시세의 급락이라는 결과가 되었다. 경제부 공업국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 750 종류의 공업제품 중에서 71%가 오버서플라이로 되어 있으며, 동시에 250 종류의 원·연료 중 현품(現品)이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77%가 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대만 섬유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신흥공업국으로부터의 추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이다.

지가(地價), 임금, 물가가 높이 올라서 생긴 가격경쟁력 저하 외에도 노동력 부족, 공장주변 주민항의 등의 마이너스 요소도 작용하여 섬유산업은 불리한 상황이 되어 생산 커패시티(capacity)와 생산량은 해마다 줄고 있다.

폴리에스터 섬유의 중합량(重合量)을 예로 들면 과거에 대만은 연간 400만 톤 수준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였는데, 1998년에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했다. 2003년에는 대만은 316만톤으로 줄고 중국은 반대로 1,200만톤으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도 대만은 270만톤으로 줄었으나 중국은 1,600만톤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요컨대 중국을 비롯한 신흥섬유공업국의 양적인 성장에 대만 섬유산업은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되어, 일본 섬유산업이 과거에 걸어온 길을 대만 섬유산업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수량적으로는 적지만 부가가치가 높고 기능성이 있는 섬유의 개발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다.

불채산부문의 철폐(撤廢), 불채산 공장의 해외 시프트 및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등으로의 집중은 대만 섬유산업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전략이다.

규모의 크기에 상관없이 섬유기업은 현재 속속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전하고 있다. 큰 기업의 예로서 상류(上流; upper stream)에서는 남아(南亞), 원동방(遠東紡), 대남방(臺南紡) 등의 큰 화섬과 방적업자, 그리고 하류(下流; down stream)에서는 취양(聚陽), 유홍(儒鴻), 남위(南緯), 연흥(年興) 등의 큰 어패럴이 속속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신흥공업국에 이전하여 해외 공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대만 내에서는 채산이 아직 맞고 있는 제품이든지 기능성 섬유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것에 전념하려고 하고 있다.

어패럴 기업은 생산거점을 해외로 시프트함과 동시에 브랜드 상품을 육성함으로써 성공한 케이스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보면 ‘Tong Wear’라는 멘즈 웨어(men's wear) 브랜드가 중국시장에서 성공한 예로 큰 어패럴 기업인 대남(臺南)기업이다.

이를 본받아 취양(聚陽)도 2006년에 ‘Pico Pica’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대북(臺北)의 번화가에 있는 태평양SOGO백화점 상권에 제1호 점포를 개점하고, 2007년 6월까지의는 신광·미쓰꼬시(新光·三越)백화점, 요동(遼東)백화점에 점포를 내놓고, 2007년말까지의는 중국 상하이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대만에 남아 있는 기업들이 직접 부딪치고 있는 과제도 많이 있다. 예컨대 염색업체는 엄격한 배수기준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중유(重油)를 비롯한 원·연료 가격 인상에도 시달리고 있다. 예를 들면 1톤의 생지를 염색하기 위하여 80~100톤의 물이 필요한데, 정부가 정한 엄격한 배수기준을 맞추기 위하여는 배수처리에 사용되는 코스트는 공업단지 내에서 1톤당 35위안(元) 이상이나 든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흥 섬유공업국의 배수처리 비용은 극히 적은데, 환경오염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한 사실도 판명되었다.

중유코스트 인상도 큰 문제이다. 1,000리터당 중유가격은 2000년의 3,000위안에서 2006년에는 1만 2,450위안으로 4배나 값이 올랐다. 염색pH치 제어조제(染色pH值 制御助劑) 등의 화학약품도 3배 이상 값이 올랐다. 그러나 이들의 값 인상에 대하여 염색공장의 위탁가공임(委託加工賃)은 폴리에스터 생지의 경우 50% 이상의 커트(cut)를 강요받고 있다. 그 영향을 받아 염색기업의 해외 시프트나 도산(倒産)의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직장을 기피하고 있는데 따른 노동력 부족과 신흥공업국과의 임금수준의 격차도 큰 과제이다. 해외 시프트에 따른

산업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외국인 단순노동자의 도입을 허가하고 있다.

현재 섬유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수가 기업의 전 고용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5%인데, 염색기업은 더 높아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대만에서의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문도(金門島), 마조도(馬祖島) 등의 외딴 섬에 외국인 노동자 공업단지를 만들어 법정최저임금법률(法定最低賃金法律) 적용을 받지 않는 등의 제안(提案)을, 대만산업계의 거물(巨物)이 여러 번 정부에 제출하였는데 인권문제 등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섬유산업을 비롯한 전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대만 경제에 대단히 중요하다. 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므로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여 실무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큰 나일론 섬유기업인 역봉(力鵬)그룹의 총경리(總經理)는 대만 섬유산업의 앞으로의 대응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어드바이스(advice)를 업계에 보냈다.

‘규모가 큰 쓰나미(津波)가 밀려들어오면 살아남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실은 섬유산업도 그와 비슷하다. 살아남는 사람은 높은 곳으로 피해간 사람(=下流보다는 上流의 원료나 소재 쪽으로 경영의 重点을 옮긴 사람), 키가 큰 사람(=上流로부터 下流까지 일관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 구명구(救命具)를 잡은 사람(=研究開發에 성공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 폐활량이 큰 사람(=財務가 단단하고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

정되어 있다’

대만섬유산업은 앞으로 더욱 번영하기 위하여 이 대응책이 참고가 될 것이다. ♣